



WMO, 미국 캘리포니아 기온 54.4℃ 검증 예정

(08.18자 WMO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세계기상기구(WMO)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데스밸리에서 8월16일 관측된 기온기록 54.4℃에 대해 검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값은 미국 서부연안 지역에서 강하고 광범위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기록되었는데,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면, 이 값은 1931년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기온 기록이 될 것이며, 지구 관측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모든 정황을 보면 이 기록은 관측규정대로 실시해 얻은 값이다. 문제의 기록이 작성된 퍼니스 크릭 관측소의 장비는 관할 기관인 라스베가스 기상대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우선 확인된 사실은 관측된 그 시각의 기기작동 상태가 정상이었다는 것이다.

WMO는 우선 대기과학자들로 이뤄진 국제팀을 통해 그 관측기록(측기 및 관측실무 포함)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전지구 기상기후극값 저장소에 등록할지 여부를 판단케 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기록을 검증할 때, 전문가위원회는 관측, 장비, 검정, 관측실무 등에 관한 현황을 점검하고, 주변 관측소들과의 일관성도 따진다.

WMO의 기상기후극값 담당 보고관 랜달 체르베니는 “이러한 검증 절차는 매우 세밀하게 이뤄지며 시간이 제법 걸린다. 따라서 여러 달이 지나도 평가가 완전히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증거자료가 지금 확보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은 (평가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그 관측기록을 예비로 인정한 상태다.” 라고 밝혔다.

폭염 Heat wave

라스베가스 기상대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장기간 지속되는 극한의 폭염 가운데 있다. 데스밸리에서는 54.4℃를 넘는 상황이 다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서부 연안지역에서 타는 듯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신기록이 작성되고 있다. 그 지역 주민 5천6백만 이상이 폭염 비상사태에 놓여있다.



미국기상청은 미 서부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8℃대를 기록하는 곳이 속출할 것이며, 특히 Desert Southwest에서는 43℃~49℃대의 최고기온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날씨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고 계다가 뇌우와 돌풍마저 일고 있다.

폭염은 에너지 사용 시설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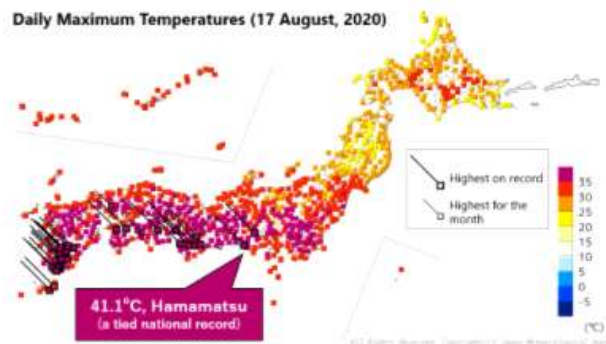
기후변화

이상 고온은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추세 중 한 현상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기록은 과거보다 더욱 자주 깨지고 있고, 폭염은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에 따르면, 관측 기록으로 봤을 때 북반구의 금년 7월은 역대 7월 중 가장 뜨거웠으며, 이 때의 북극 해빙의 높이는 역대 7월 중 가장 낮았고, 금년 1월~7월은 역대 동 기간들 중 두 번째로 따뜻했다.

서유럽 및 중유럽에서도 폭염이 발생했는데, 8월 둘째 주에는 관측소별 신기록이 다수 작성되었다. 폭염을 일으킨 더운 공기는 조만간 동 유럽지역으로 이동할 것인데, 예보에 따르면 더운 공기가 특히 동유럽의 서쪽 지역 국가들 즉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에서 1-2주간

머물 가능성이 있다.



일본 하마마츠에서는 8.17일 기온이 41.1℃로 치솟아 역대 국내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일본기상청은 서부와 동부지역에서 이상고온 상태가 8월21일까지 계속될 것이며, 일최고 기온이 35℃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기상청 발 2주

간 기온예보와 1개월 예보에 따르면, 평년 기후조건보다 더욱 덥고 이 상태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베리아에서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 사이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에서는 6월 20일 기온이 그곳의 역대 최고기록인 38℃까지 올랐다. WMO는 현재 이 값이 북극권 신기록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역대 기록

기상기후극값아카이브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록된 역대 최고기온은 1913년 7월 10일 기록된 56.7℃로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벨리 내에 위치한 퍼니스크릭 관측소에서 기록되었다. 동반구 최고기온은 1931년 7월 튀니지 케빌리에서 작성된 55.0℃이다.

이 외에도 쿠웨이트 미트리바에서 2016년 7월21일에 54.0℃가 관측되었고, 이와 같은 값이 2017년 5월 28일 파키스탄 투르바트에서도 관측되었다.

기상역사 전문가들 중 일부는 구시대의 관측기록의 정확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WMO의 기상기후극값아카이브는 새로운 믿을만한 증거가 제시되기만 하면 등록되어 있는 과거의 극값 기록을 언제든지 재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